

▶ 달러/원 주간 전망

• 굵직한 재료 '겹겹이'... 양방향 변동성 리스크

서울, 7월15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 확산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중 총격 부상에 따른 각 자산시장별 반응 따라 보폭을 키울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60-1,390원이다.

미국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확인에 연방준비제도(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대로 급증했다. 전주 의회 청문회에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은 파월 의장이 주초에 있을 워싱턴경제클럽 인터뷰에서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여러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대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하를 더욱 지지할 주요 경제지표 결과도 뒷받침될지 주목된다. 금주에는 미국 6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이 발표된다.

달러/원 환율은 강달러 추세 변화를 저울질하면서 거래 레인지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안 '배드뉴스'를 '굿뉴스'로 해석한 시장 반응이 지속될지도 살펴야한다. 그간 과도하게 달려온 증시가 한층 강화된 금리인하 기대에 편승하기보다는 경기침체 우려를 빌미로 과격한 조정 양상을 보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외인 주식 행보와 원화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환시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외 증시 동향과 외인들의 매매 동향은 계속 살펴야할 재료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유세 중 총격을 당한 사건에 따른 각 자산시장의 반응도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대응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주는 중국 쪽 이슈도 많다. 2분기 GDP, 6월 산업생산·소매판매·고정자산투자 등 핵심 경제지표 발표가 대기중이고 아울러 3중 전회도 열린다.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2분기 중국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1% 성장해 2023년 3분기 이후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의 추세 변화 전제돼야지만 원화의 유의미한 강세시도가 뒤따를 것이라는 시각 속에 위안과의 원화의 동행은 지속될 전망이다.

유럽중앙은행(ECB) 정책회의도 예정돼있다. 로이터 조사에서는 ECB가 9월과 12월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 주간 세계 5대 이슈

⊙ 바쁜 한 주 예상

이번 주 미국은 정치, 소매판매, 연방준비제도, 은행 실적에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한 주를 맞을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높아진 금리가 가계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으며, 경기 냉각 조짐과 인플레이션 둔화가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6일의 소매판매 데이터는 성장 둔화가 소비자 부문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5일 워싱턴에서 연설하고, 같은 날 골드만삭스가, 다음 날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간스탠리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장은 바이든의 재선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그의 라이벌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후보로 지명될 예정이다.

⊙ EBC 정책회의

유럽중앙은행(ECB)은 5년 만에 금리를 인하한 지 한 달 만인 오는 18일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정책결정권자들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더 언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6월에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완화되었지만, 서비스 부문 지수는 상승했다.

일부 정책결정권자들은 6월의 금리 인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ECB는 서두르지 않고 9월 회의 전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프랑스에 추가 혼란이 발생할 경우 개입하여 프랑스 및 기타 국가 국채를 매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것이다. 시장 변동이 훨씬 더 크거나 다른 국가의 채권시장에 심각한 전염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중국 3중전회

일반적으로 5년마다 열리는 중요한 행사로 작년 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중국의 3중전회가 미뤄진 끝에 15일에 시작된다. 개혁은 최우선 의제로, 중앙정부에서 자금이 부족한 지방정부들로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 30년 만에 가장 중대한 재정 시스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인 GDP,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도 이번 주 발표된다. 상반기에는 수출 호조로 숨통이 트였지만,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위축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장기 채권 금리를 지지하려는 인민은행의 노력도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새로운 부양책이 시장 심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우량주 CSI300지수는 7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 영국 국왕의 연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17일 연설로 새 의회의 회기 시작을 알리면서 키어 스타머 총리의 새 정부의 전체 입법 의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이날 발표되는 영국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예의주시할 것이다.

영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5월에 영란은행의 목표치인 2%로 완화되었지만 정책결정권자들은 연간 기준으로 6%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서비스 물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영란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휴 필은 한 번의 데이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르면 8월1일로 예정된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금융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오는 18일에 발표될 영국의 최신 일자리 데이터도 임금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우려하는 영란은행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 유럽 기업 실적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업체인 ASML과 독일 소프트웨어 그룹인 SAP가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한다.

대형 기술 기업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화두가 될 것이다. AI 반도체 제조업체인 엔비디아가 이끄는 미국 빅테크의 눈부신 상승은 S&P500의 전반적인 실적을 왜곡했다. S&P500지수는 올해 17% 상승했지만, S&P500 동등 가중 지수.EWGSPC는 3.8% 상승에 그쳤다.

유럽에서도 시장의 폭(market breadth)이 중요하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상위 10개 스톡스 구성종목이 전체 지수의 25%를 차지하는데, 5년 전에는 약 20%였다. 스톡스지수는 연초 대비 7.8% 상승했는데 스톡스 동등 가중 지수는 3.8% 올랐다. 미국보다는 격차가 작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투자자들, 금리 인하 기대감 속 빅테크 밖으로 관심 확대

뉴욕, 7월15일 (로이터) -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임박하면서 투자자들은 1년 이상 수익률을 견인한 대형 기술주를 고수할지, 통화 완화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덜 사랑받던 분야로 전환할지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대형 기술주 및 성장주를 보유하는 것은 2023년 초부터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준 전략이었다.

그러나 지난 11일의 놀랍도록 낮은 인플레이션 보고서로 인해 단기간 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전망이 확고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전략은 바뀌기 시작할 수 있다. 금리 인하는 소형주, 부동산주, 산업주와 같은 경기민감주 등 올해 실적이 부진한 종목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후반 시장 움직임은 이러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지수는 11일에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지수는 2024년 들어 가장 좋은 하루를 보냈다. 나스닥 100지수는 올해 약 21% 상승한 반면 러셀 2000지수는 6% 상승에 그쳤다.

또한 11일에는 S&P500 동일 가중 지수.SPXEW가 대형 기술주 및 성장주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벤치마크 S&P500지수에 비해 2020년 이후 가장 큰 상대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린우드 캐피털의 최고투자책임자인 월터 토드는 "거래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소형주와 S&P500 동일 가중 지수는 12일 상승세를 지속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기술주와 다른 시장 부문 간의 실적 격차가 극에 달한 이후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고 믿었던 2023년 말에 소형주가 급등했다가 이후 몇 달 동안은 주춤하는 등 상승세가 단기간에 그친 경우가 있었다.

Time for catch up?

The Russell 2000 and equal-weight S&P 500 perked up this week, in a sign of US stock market broadening, after trailing tech-led indexes



Source: LSEG | Graphic by Lewis Krauskopf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낙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일 선물 시장은 연준의 9월 25bp 금리 인하 확률을 거의 90%로 반영했다.

컴벌랜드 어드바이저스의 사장 겸 개인 자산 담당 이사인 매튜 맥알리어는 생명공학 기업을 포함해 신용에 크게 의존하는 소규모 기업이 금리 인하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 집약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부채에 의존할 수 있는 산업 기업도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권 수익률이 계속 하락하면 주식 밸류에이션이 더 매력적이 될 수도 있다.

벤치마크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최근 4.2% 부근으로 4월 고점 대비 약 50bp 하락했다.

아직 대다수는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 더 탄력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메가캡 기업의 주식을 멀리할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다.

호라이즌 투자 서비스의 최고 경영자 척 칼슨은 미국 경제가 수개월간의 금리 인상 이후 예상보다 더 약화되기 시작하면 빅테크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체리 레인 인베스트먼트의 파트너인 릭 메클러는 메가캡 기술주는 올해 투자자들을 흥분시킨 인공지능 테마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매수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AI 논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한 이러한 주식이 크게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서울, 7월15일 (로이터) - 이번 주 국내 주요 경제 일정

7월15일(월)

- ⊙ 한국은행: 2024년 5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 ⊙ 한국은행: 총재 EMEAP 총재회의(7.14~17, 말레이시아 페낭)

7월16일(화)

- ⊙ 한국은행: 2024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06:00)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미국과 유로지역의 소비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 (12:00)
- ⊙ 한국은행: 2024년 제12차(6.26일 개최,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 ⊙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2:00)

7월17일(수)

- ⊙ 기획재정부: ADB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발표 (09:00)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최근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 관리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12:00)

7월18일(목)

- ⊙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비통방) (10:00)
- ⊙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 선정 (배포시)
- ⊙ 한국은행 · 통계청: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12:00)
- ⊙ 한국은행 · 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2020 기준년 개편 결과 (12:00)
- ⊙ 기획재정부: '24.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7:00)

7월19일(금)

- ⊙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관계차관회의 (09:00)
- ⊙ 한국은행: 2024년 6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대외경제자문회의 (14:3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7월15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7월15일	10:30	중국	주택가격 YY	6월		-3.9%
7월15일	11:00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YTD)YY	6월	3.9%	4.0%
7월15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6월	5.0%	5.6%
7월15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6월	3.4%	3.7%
7월15일	11:00	중국	GDP YY	2분기	5.1%	5.3%
7월15일	18:00	유로존	산업생산 MM	5월	-1.0%	-0.1%
7월15일	21:30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7월	-6.00	-6.00
7월16일	21:30	미국	수입물가 MM	6월		-0.4%
7월16일	21:30	미국	수출물가 MM	6월		-0.6%
7월16일	21:30	미국	소매판매 MM	6월	0.0%	0.1%
7월16일	23: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7월	44	43
7월17일	08:00	일본	로이터 단칸 제조업지수	7월		6
7월17일	18: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확정치 MM	6월		0.2%
7월17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7월12일 주간		206.1
7월17일	21:30	미국	건축허가건수	6월	1.385M	1.399M
7월17일	21:30	미국	주택착공건수	6월	1.305M	1.277M
7월17일	22:15	미국	산업생산 MM	6월	0.3%	0.9%
7월18일	08:50	일본	수출 YY	6월		13.5%
7월18일	08:50	일본	수입 YY	6월		9.5%
7월18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7월8일 주간		222k
7월19일	08:30	일본	CPI MM NSA	6월		0.4%
7월19일	17:00	유로존	경상수지 NSA, EUR	5월		34.44B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7월15일 (월)

- ⊙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개최 (~18일까지)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워싱턴경제클럽 인터뷰 (16일 오전 1시)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포춘 브레인스톡 테크 2024 참석 (16일 오전 5시35분)
- ⊙ 휴장국가: 일본

7월16일 (화)

- ⊙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NABE 세미나서 연설 (17일 오전 3시45분)

7월17일 (수)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그레이터 프린스 조지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 (오후 10시)
- ⊙ 휴장국가: 인도

7월18일 (목)

- ⊙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결정 발표 (오후 9시15분),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기자회견 (오후 9시45분)
- ⊙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댈러스 연방은행과 애틀랜타 연방은행 공동 후원 컨퍼런스 개최사 (19일 오전 2시45분)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댈러스 연방은행과 애틀랜타 연방은행 공동 후원 컨퍼런스 참석 (19일 오전 7시5분)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댈러스 연방은행과 애틀랜타 연방은행 공동 후원 컨퍼런스서 연설 (19일 오전 8시30분)

7월19일 (금)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페루 중앙은행 등 공동 주최 컨퍼런스 참석 (오후 11시40분)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댈러스 연방은행과 애틀랜타 연방은행 공동 후원 컨퍼런스 폐회사 (20일 오전 1시45분)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 - 윤 대통령, NATO서 유럽에 대한 북한의 '뚜렷한 위협' 논의할 것

서울, 7월8일 (로이터)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적 관계를 심화함으로써 유럽에 가하는 뚜렷한 위협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도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러시아는 남북한 중 진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한국과의 관계를 어느 쪽으로 원하는지는 러시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며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새로운 군사 협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뚜렷한 위협이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윤 대통령이 NATO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기 전 로이터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2022년 NATO 정상회담에 한국 지도자 최초로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번 워싱턴 행사를 위해 8일 출국한다.

한국은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7월10일과 11일 회담에 참가하는 아시아태평양 4개국 중 하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대포를 공급받으면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악화됐다. 러시아와 북한 모두 그러한 거래를 부인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적인 국가 중 가장 우호적인 나라”라고 불렀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한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자 이에 항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분명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적 존재”라며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남측과 북측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합리적으로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러 관계의 미래는 전적으로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유럽 및 기타 미국 동맹국과의 안보 유대 강화를 추진해 왔다.

동시에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 등의 문제에 관해 세계 안보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승인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의 수

준과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무기 거래, 군사 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017년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에 찬성했던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적인'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며 그 대가로 북한에 어떤 도움을 줬을지 고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러시아가 계속해서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다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다섯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었고, 러시아는 한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국이었다고 워싱턴에 본부를 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오는 9월 국정원이 주관하는 나토 회원국을 초청하는 사이버 방어 훈련을 통해 나토와의 파트너십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가 11월 미국 대선에서 두 번째로 대통령이 될 경우 미국 정책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지만 지난 70년 동안 한-미 동맹에 대한 초당파적 지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앞으로도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 잭김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프리뷰) - 中 3중전회, 상충되는 목표 어떻게 풀어낼까?

베이징, 7월11일 (로이터) -

중국 지도자들은 다음 주 열리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겠지만, 부채를 줄이면서 성장을 촉진하는 것과 같은 상충되는 목표 때문에 변화를 이행하는 데는 거의 진전이 없을 수도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첨단 제조업 육성, 부채 위험 억제를 위한 세제 개정, 부동산 위기 관리, 국내 소비 촉진,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정책 자문들은 말한다.

기업, 고용 및 소비자 심리가 사상 최저치에 가까운 상황 속에 15일부터 4일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또는 1990년대 이후 일본이 종종 직면했던 디플레이션을 향하고 있다는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지도자들은 부채를 줄이고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 생산자와 인프라에 자원을 투입하면서 소비를 늘리는 방법, 농촌을 활성화하면서 도시화를 촉진하는 방법을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다.

시진핑 주석이 주재하는 이번 비공개 회의 마지막에 발표될 성명서에는 높은 목표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가 거의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성장 모델 변화를 요구하는 금융 시장과 글로벌 정책 관리들을 실망시키게 될 것이다.

주제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한 정책 자문은 "인구 고령화, 부동산 거품, 지방 정부 부채 위험, 금융 위험 등 여러 위험이 중첩되어 있는 만큼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개혁을 실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심각한 도전

중국 지도자들은 3중전회를 통해 중대한 변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하여 중국의 초강대국 부상에 불을 붙인 것과 2018년 가장 최근의 회의에서 임기 제한을 폐지하여 권력을 공고히 한 시진핑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정책결정권자들은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 당국은 2035년까지 중국 경제를 두 배로 성장시켜 연평균 4.7%의 성장을 달성하고자 한다. 중국 경제가 지난해 5.2% 성장에서 2029년에는 3.3%로 둔화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처럼 중국 당국의 목표가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 다른 정책 자문은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며 "개혁하지 않으면 경제는 IMF 전망에 따라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부채에 기반한 투자 프로젝트와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신 가계 지출을 늘려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2013년 회의에서 지도자들이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그러한 변화를 이행하는 데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와 임금 인상을 통해 정부와 기업에서 가계로 자원을 이전해야 하며, 이는 부채 감축과 산업 목표를 약화시킬 수 있다.

중국은 해외 투자에 개방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하지만 외국 기업들은 불시 단속과 체포, 광범위한

국가보안법 적용, 국내 경쟁업체에 대한 국가 지원 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정부가 너무 강하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윌리엄스는 "이번 회의가 개혁에 대한 긴 공약 목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의 후 성명서에는 이행에 대한 제안이나 우선순위 또는 개혁안 간의 긴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전인대는 시 주석이 작년에 만든 유행어인 '신생산력'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과학 연구와 산업 혁신이 중국을 새로운 고성장 시대로 이끄는 기술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무역 파트너와 일부 신흥 경제국들이 중국의 공산품 수출에 대한 장벽을 세우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산업 정책은 또한 실업 수당이나 고령화 인구를 위한 연금 인상과 같은 소비자 지향적 조치에 대한 자금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민간 부문은 공산당이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국유 기업과 민간 기업 모두를 "확고하게" 지원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한 정책 자문은 "정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경제를 더 개방하고 국제 표준을 채택하고 싶지만 동시에 정부와 기업을 통합하여 당의 리더십을 강화해야 하기에 외부 세계에는 모순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